

- 본문 : 사도행전 1장 4~8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이념과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사랑한 제자”

**· 본문 읽기**

-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민족을 향한 자기 열정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인류를 사랑하는 일에 전 생애를 쏟아 부었던 제자의 이야기다. 좁은 의미의 자기 민족을 벗어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애를 바쳤던 제자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들을 때 당신은 ‘협소한 애국자인가?’,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인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 「은혜의 선택, 은혜의 부르심」 말씀시리즈에서 10번째로 살펴보는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 누가복음 6:15
- “셀롯이라는 시몬”(눅6:15)은 열심당원이다. 열심당파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종파인가?
-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민족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변화시켜 간 제자이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한 제자(‘시몬’으로 추정)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 사도행전 1:6~8
-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주님이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인가?  
\* 사도행전 1:3b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제자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이념과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훈련 소그룹 안에서 이념의 양극단에 있는 제자들을 섬기면서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요13:34~35). 당신은 주님의 명령과 권면을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민족주의 사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 말씀기도제목**

- 내 안에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민족주의적인 열정’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선교적인 열심”이 충만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념과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 송원교회가 「은혜의 선택,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부질없는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생명공동체 되게 하옵소서.